

미국 마감 상황

2009.04.01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뉴욕증시 동향

- 31일 뉴욕증시는 주택지표와 소비지표가 시장의 전망을 밀도는 등 부진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이틀간의 하락에 따른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.

업종/종목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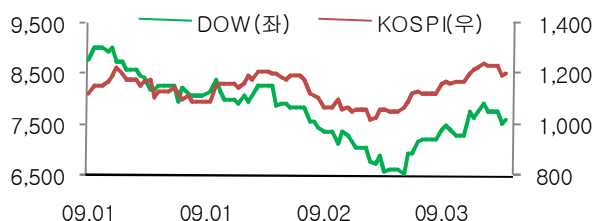
- 분기말을 앞두고 씨티그룹과뱅크오브아메리카(BOA)는 '원도드레싱' 효과로 인해 각각 9.5%, 13.1% 급등.
- 미국 최대 알루미늄업체 알코아는 BHP 지분 인수설이 전해지며 10% 가까이 급등.
- GM은 프리츠 핸더슨 신임 최고경영자(CEO)가 노조와 채권단의 양보가 없으면 추가 구조조정 기간 안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혀 파산 우려가 증폭되며 28% 급락.

경제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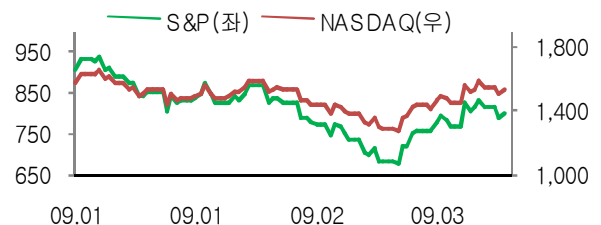
- S&P/케이스실러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8.6% 하락하며 사상 최대 하락세를 기록.
-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(PMI)의 3월 제조업 지수는 31.4를 나타내며 6개월 연속 위축.
- 국제유가는 전날 낙폭을 회복하며 2% 가량 상승.
- 뉴욕상업거래소(NYMEX)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 5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.05달러(2.2%) 상승한 49.66달러에 마감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7,608.92	1.16	-0.67	2.88	7.73	-10.31	-37.95
S&P(좌)	797.87	1.31	-1.04	2.54	8.54	-8.23	-39.68
NASDAQ(우)	1,528.59	1.78	0.80	4.55	10.94	1.21	-32.93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- 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- 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